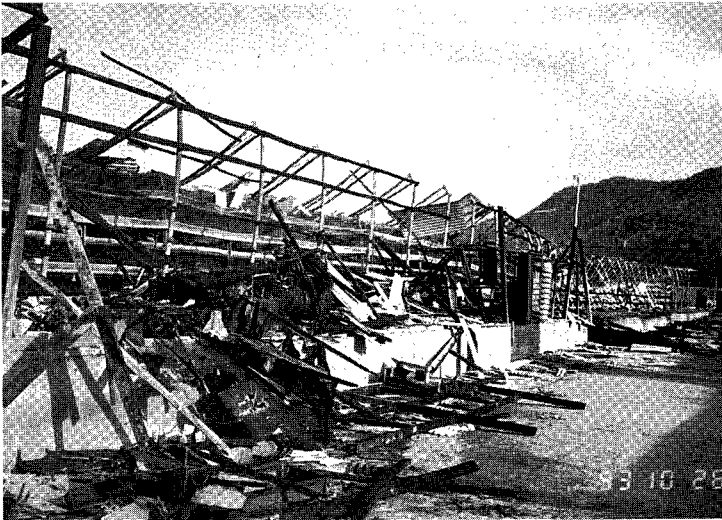


배전판, 바닥, 단열재 상태 수시 점검이 필요한 때

□ 정리/김동진 기자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함으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진은 지난번 중추농장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계사가 전소된 장면이다)

해 마다 겨울이 찾아오면 계사내 온도유지를 위해 열풍기나 난로의 사용이 늘어 평소에 소홀하기 쉬운 열관리 측면에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육계, 채란계사는 목재나 라이프를 기초로 외벽면에 골드폼 등 단열재로 덮여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보온을 목적으로 계사주위를 비닐로 처리하는 농가가 많아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잔존해 있는게 현 실정이다.

최근 자동화, 대형화에 따른 무창계사가 증가하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시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겨울철 화재발생의 주원인을 보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열원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열풍기 관리 소홀, 계사내 연료의 무관심한 방치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시설에 따른 누전의 위험성도 사양가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무창계사나 대부분의 자동화계사는 전기에 의해 모든 기기가 작동하고 있어 불시의 정전이나 단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크게 나타나며 특히 무창계사의 경

우 불시의 전기사고에 대비해 자가발전기를 구비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따라 사양가들은 전기상식을 충분히 숙지해야함은 물론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만 돌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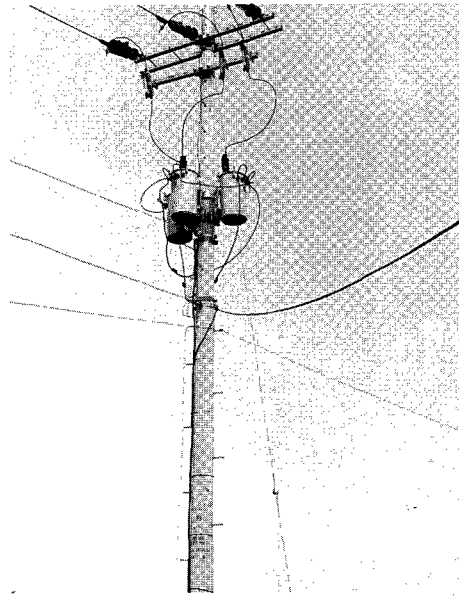
즉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농장에는 화재의 요인이 잔존해 있지 않은가를 파악하고 자주 계사 내외부를 둘러보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화재예방을 완벽하게 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지만 농가에서 주의해야할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시설에 따른 누전 차단기의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전기선은 보이는 곳에 노출시켜 이상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서대책을 세워 쥐가 전선을 훼손시키지 못하게 해야한다.

둘째, 열풍기나 난로사용시 열원(연탄, 석유 등)은 가급적 계사와 먼 거리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연료를 계사 내부에 둘 경우 화재발생시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셋째, 계사건축시 피뢰침을 설치하여 낙뢰에 의한 피해를



◀ 사양가들은 충분한 전기상식을 숙지해야 한다. 전기누전에 따른 화재의 위험성은 항상 잔존해 있어

사전 대비해야 하고 단열재의 내·외부에 불연성 자재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부 농가에서는 건축자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단열재로만 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비상시 재산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보험이란 개념을 인식치 못하고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방화수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활용방법과 작동요령을 농장관리인들에게 숙지를 시키고 농장주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

람직하리라 본다.

위에 몇가지 주의점을 열거했지만 농장의 주변환경과 농장특성상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는 곳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기사고나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사고는 겨울에만 국한된게 아니기 때문에 계절을 떠나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사 곳곳을 관찰하는데 소홀하기 마련이며 이때일수록 계사 주위를 한번더 돌아볼 수 있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양기**